

전북도민일보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15면 문화 18.2 x 17.6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 표점사업 선정

임진왜란때 오희문 피난일기 번역·교감 표점본 발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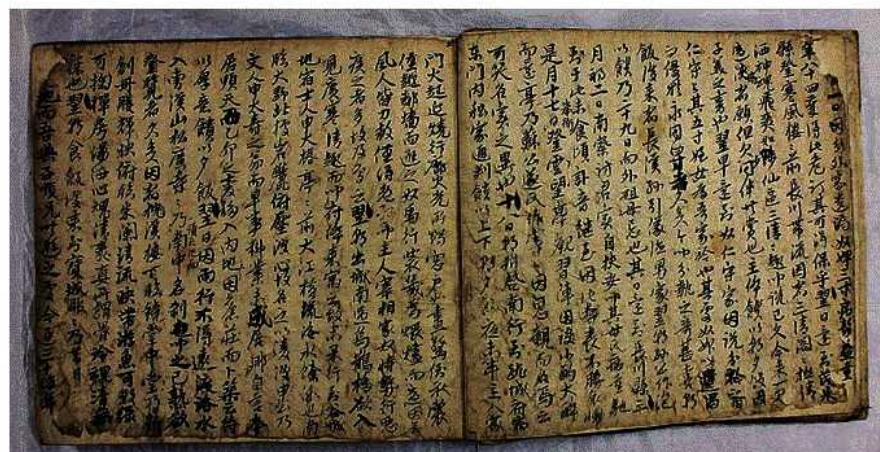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15일 “지난 2017년 임진왜란 자료인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감 표점 사업은 다른 판본의 문헌을 대조해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고, 띠어쓰기가 없는 한문 원문에 적절한 문장 부호를 표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인 기록물로 꼽힌다.

‘쇄미록’은 총 7권 분량의 필사본으로, 전쟁에 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됐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 사회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해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다년간의 번역 사업을 통해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며,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원이 원문의 표점과 교감을 담당하고, 국내의 저명한 전문연구자와의 상호협조를 통해 학술연구와 감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맡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전통지식 DB구축과 현대적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임진왜란 대표 기록물 '쇄미록' 전주대서 더 완벽하게 국역된다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 〈쇄미록〉이 전주대에서 완벽하게 국역된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15일 “2017년 임진왜란자료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

올해 교감 표점사업 선정 참여 원문대조오텔자 문제점 보완 작년 재번역 국역본 완성 제고

(1539~1613)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오는 6월까지 마치는 사업이다.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된 〈쇄미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

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쇄미록〉은 지난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초서로 쓰여진 내용을 현대 한자로 텍스트화 한 것)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틸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오·틸자를 바로잡는 일) 표점(쉼표, 마침표 등 부호를 사용해 내용 이해를 돋는 일)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하여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이병재기자 · kanadasa@

세전북신문

‘처참했던 임란의 기록’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번역작업

임진왜란시기 백성들의 피난생활을 담은 ‘오희문’의 ‘쇄미록’이 번역된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해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감·표점이란 문헌의 다른 판본을 두루 비교·대조해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며, 표점은 띠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에 그 의미에 따라 적절한 문장부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주대는 지난해 재번역 한 쇄미록에 대해 오타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에는 변주승 교수, 김건우 교수, 유영봉 교수(이상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전현운(한국고전학연구소 이하 동일), 채현경, 장성덕, 황교은, 이주형, 강지혜 연구원이 참여한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대표적 기록물로 꼽힌다.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비참했던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과 수령·아전·양반·상민·노비의 생활, 왜병의 살인·방화·약탈, 명나라 원군의 휩포, 서울의 전화, 의병 활동상, 군대 징발, 세금 징수, 군량 운반 등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보물 제 1096호로 지정되어 있다.

당초 쇄미록은 196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을 간행했었다.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본 결과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대 관계자는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서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14면 문화 25.6 x 17.1cm



전민일보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17년 임진왜란자료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

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리된다.

또한 지난해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해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전통지식 DB구축과 현대적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윤복진기자

전라매일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13면 교육&문화&체육 18.0 x 16.7cm

임진왜란 기록, 더 생생히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2017년 임진왜란자료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히려(吳希文, 1539~1613)의 피난 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憲批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됐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다.



보물 제1096호 '쇄미록'.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해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

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전통지식 DB구축과 현대적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가운데 국내 유일 대형연구소로 선정됐다.

/정석현 기자

전북언립신문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04면 교육 24.1 x 10.3cm

전주대, 임진왜란 기록물 세계화 선도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가독성 제고·체제 통일 등 완성도 향상 총력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17년 임진왜란기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파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다.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합으로써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김수해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

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산업 전통지식 DB구축과 현대적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의 번역 사업을 통해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출판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전광훈 기자 · earth0294@naver.com

새만금일보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03면 종합 10.7 x 14.5cm

전주대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국립진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쇄미록' 교감·표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의 난 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과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다.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쇄미록은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지만 오자와 탈자, 결손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기자/ybw0419@naver.com

전북타임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16면 문화 12.1 x 19.4cm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올해 국립진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쇄미록 교감·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임진왜란 기록물 세계화에 기여할 것"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교감·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올해 국립진주박물관이 주관하는 '쇄미록 교감·표점 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교감은 문헌의 다른 판본을 두루 비교·대조해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며, 표점은 띠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한문 원문에 그 의미에 따라 적절한 문장부호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물 제109호로 지정돼 있는 '쇄미록'은 '난중일기'와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총 7권 분량의 필사본인 쇄미록은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자세히 묘사

됐을 뿐 아니라, 음식·제사·질병·민간요법·상업 활동·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도 상세히 기록돼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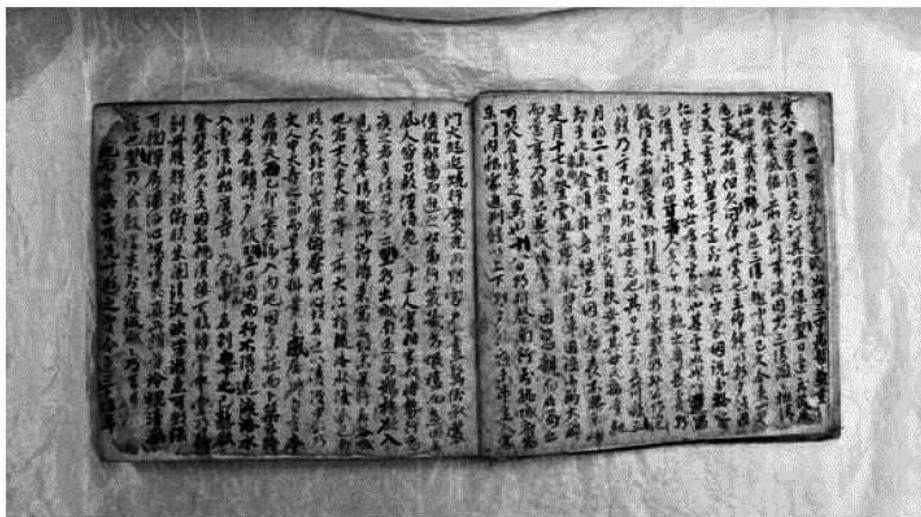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쇄미록은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지만 오탈자와 결손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지난해에도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황은송 기자

삼남일보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004면 사회 12.6 x 17.9cm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자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 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17년 임진왜란 자료 '쇄미록'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1539~1613)의 피난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하여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임진왜란자료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17년 임진왜란자료 《쇄미록(?)尾錄》 재번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쇄미록》 교감 표점 사업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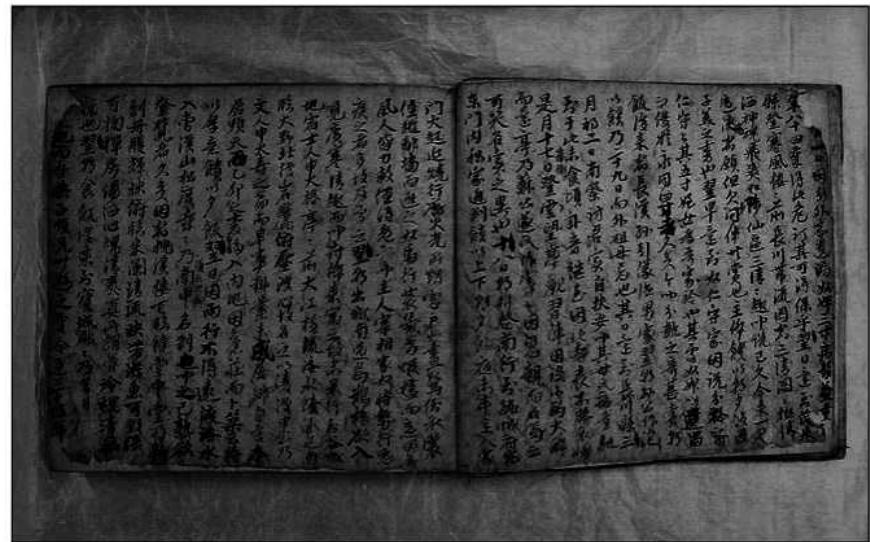
이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최영창)의 주관으로 임진왜란 당시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의 피난 일기인 《쇄미록》에 대한 번역 및 교감 표점본을 발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6월까지 진행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과 더불어 임진왜란 시기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쇄미록》은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하게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 제사, 질병, 민간요법, 상업 활동, 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자료이다.

《쇄미록》은 본래 1962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 탈초본이 간행됐다. 하지만 실제 원본과 대조해 보면 오자, 탈자, 결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저한 원문 대조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교감 표점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등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서양의 연구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진왜란 기록물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2017년도 사업을 통해 이미 재번역 된 국역본을 다시 감수해 가독성 제고, 체제 통일, 주석 정리 등 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맡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농촌진흥

청의 농산업 전통지식 DB구축과 현대적 활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가운데 국내 유일 대형연구소로 선정됐다.

또한 다년간의 번역 사업을 통해 《국역 여지도서》, 《국역 추안급국안》, 《국역 존재집》, 《국역 문곡집》, 《국역 병산집》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역 성과를 일궈냈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연구원이 원문의 표점과 교감을 담당하고 국내외 저명한 전문연구자와의 상호협조를 통해 학술연구와 감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애 기자